

LOCAL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나주의 뿌리 ‘영산강’ 문화·생태·역사 되새긴다

함평천지물, 단호박 기획전
29일까지 1인당 20% 할인

함평군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소평물인 함평천지물에서 단호박 기획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함평산 미니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신선하고 달콤한 단호박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까지 ‘함평 보유종 와우짬’을 진행. 단호박 구매 시 1인당 최대 5개, 5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결제금액 5% 적립, 신규 회원가입 시 5000원 쿠폰 지급, 구매 후기 작성 시 적립금 제공, 베스트 리뷰 선정 고객에게 5000원 추가 적립, 무료배송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기획전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함평 단호박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경 기자 6263739@

구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대응

구례군은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군·읍면 민원담당 직원과 구례읍 파출소 경찰관이 함께 참여했다.

훈련은 발급 시도만으로도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상황을 가정한 진행됐다. 대응절차는 △민원인 진정 유도 △사건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 순으로 이뤄졌다.

김순호 군수는 “민원실은 군민 누구나 찾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비상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photo25@

시, 10월 8~12일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최
농업페스타·정원페스티벌·마라톤대회도 열려

올 가을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나주 문화와 생태,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올해도 마련됐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통합축제로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주농업페스타(10월 8~12일), 전남도 정원페스티벌(10월 8~29일),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월 12일)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영산강 주 제관’이다.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첫날에는 나주의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가 주제공연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해 영산강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으로 무대에 오른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의 역사 인물을 새롭게 풀어낸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어린이 직업 체험 ‘키자니아 in 나주’,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뽀로로 & 베베핀 상어툰쇼’, 보드게임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전통문화 공연도 풍성한데 천연염색페션쇼, 마당극 ‘나주삼색유신놀이’, ‘동강봉추 들노래’, 무용극 ‘K-풍류 나주의 전설: 청명’ 등이 무대에 올라 지역 문화의 멋과 흥, 깊이를 선사한다.

가을 정취를 더하는 코스모스 단지와 영산강 횡단 보행교는 영산강 변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축제 기간 매일 밤 열리는 ‘영산강 뮤직페스티벌’에서는 김용빈, 최정원, 마이클라, 김호영, 라비던스, 린, 박지현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채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은 나주의 뿌리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나주의 문화, 생태, 역사적 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AI 접목’ 전국 최대 규모 게임잼 개최
총상금 2000만원...내달 26~28일 순천글로벌벨벳센터

순천시는 9월 26~28일 순천글로벌벨벳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규모의 ‘게임잼’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게임 특화 종합 콘텐츠기업(썬디오리진)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재 발굴 등 콘텐츠산업 성장의 발판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임잼은 게임 제작사·대학교·기관 등이 주축해 제한 시간 안에 참가자들이 팀을 꾸려 주어진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순천시는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를 시도하며, ‘AI로 상상을 현실로’를 슬로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게임잼을 운영한다. 총상금 2000만원은 썬디오리진이 전액 지원한다.

게임 개발 주제는 순천과 연관된 소

제로, 개막 당일 공개된다. 기획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창의적인 게임을 완성하게 되며, 수상작은 오는 10월 17~19일 열리는 ‘2025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올텐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는 17세 이상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관구 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도심 클러스터의 기능을 살려 게임이라는 콘텐츠로 새로운 산업 영역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웹툰·애니메이션·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통해 기업·학생·청년들이 모여드는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순천의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영암 삼호 앞바다서 갈치 낚시 즐겨요”

군,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상 낚시터 운영

영암군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 낚시행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갈치 낚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지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이뤄진다.

낚시가 이뤄지는 삼호 앞바다는 조석소 불빛이 반사되는 밤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의 대표 낚시터로 알려진 곳이다.

특히 선상에서 낚는 은빛 갈치는 찢듯한 손맛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지난해에는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 관광객 약 8700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이를 통해 영암 어민은 6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을 면밀히 살폈다.

갈치 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배 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갈치 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 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010-9382-2180)에게 연락하면 된다.

단, 쓰레기 투척, 음주, 흡연 등 위험 행



위와 방파제 낚시는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갈치 낚시행사는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 해양레저 관광자원 확대 등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며 “삼호 앞바다를 찾은 영암군민 등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진도, 지역 현안 해결 특교세 16억 확보

진도군은 최근 고군면 두목재 낙석위험 법면 보강, 진도를 수유지구 용수로 설치 공사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군면 두목재 도로 구간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급경사와 취약한 지반으로 인해 낙석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집중호우 시 상시적인 토사 유출 우려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군은 고군면 두목재 낙석위험 법면 보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 낙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을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한 진도를 수유지구 용수로 설치 공사는 군민의 영농활동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인증 및 특허

공공기관 실적

목포시 수영장물정비단 부분보수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단보수공사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형배수장의 보수공사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여수지방해양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무안군청 삼향교 복원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